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 미사 독서: 조은영 베다, 김지원 카린	
다음주 미사 독서: 이종재 프란치스코, 전은숙 글라라	
금주 미사 복사: 우명희 카타리나	
다음 주 미사 복사: 성인영 마리스텔라	
금주 미사 해설: 김보미 로사	
다음 주 미사 해설: 우명희 카타리나	
반	주: 조은영 베다, 정연희 가브리엘라, 강동현
회	계: 황성필 요한, 친교실 정리: 2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161 교무금: \$ 300	
감사헌금: \$200 (오동근형제님)	
\$100 (김경만 형제님 /이영숙 자매님)	
\$50 (유지원 자매님)	

합계 : \$ 811	
봉헌봉사: 김지원 카린	
다음주 봉헌봉사: 최고은 소피아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목 주 기 도	매주 미사 20분전 (오후 4시 40분 부터 4시 55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친교/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남성교우 기도모임	격주 금요일 (6 월 28 일 저녁 8:00, 사제관)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 시 (장소: club.catholic.or.kr/thekccm 게시판 참고)
교리 모임	미정
성경 통독 모임	격주 금요일 (6 월 21 일 저녁 7:00, 장소: 페이스북 클럽 참고)
골프 모임	매주 일요일 아침 (Tumbledown Trails, 시간:페이스북 클럽 참고)
테니스 모임	매주 일요일 (Tennis court at Rennebohm park, 시간: 페이스북클럽 참고)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매월 둘째주 토요일
2 구역	매월 첫째주 토요일
3 구역	매월 셋째주 토요일
대학원 구역	미정
학부생 구역	미정
†오늘의 묵상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의 유형이 있습니다. 평면적 인물이란 이를테면 고대 소설 『홍부전』에서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존재로 묘사되는 흥부나 한결같이 악인으로 묘사되는 놀부 같은 인물을 가리킵니다. 그 반면, 입체적 인물이라고 하면 악한 사람이었다가 선한 사람으로, 아니면 선한 사람이었다가 악한 사람으로 바뀌는 식으로 변화되는 인물입니다. 이를테면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스크루지 영감은 지독한 구두쇠로 사는 이였지만, 죽은 동료들의 영혼의 도움으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보며 너그러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때 스크루지라는 인물은 평면적 인물이 아니라 입체적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크게 세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사이, 예수님, 그리고 죄인인 여자입니다. 바리사이는 죄인인 여자를 행실이 나쁜 여자로 완전히 고정시켜 버립니다. 그의 눈에는 죄인인 그 여자가 평면적 인물입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 예수님께 그 여자는 입체적 인물입니다. 행실이 나쁘다는 사실에 고정되지 않으시고 그 여자의 변화에 주목하십니다. 그 여자에 대하여 단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면을 바라보시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저러저러한 사람이야.’ 하고 고정시켜 버리지는 않습니까? 어느 한 사람을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나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하느님 은총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임 신부 유성모 요셉 (608) 293-1114 사목외장 이종재 프란치스코 (608) 772-5701				홈페이지 club.catholic.or.kr/thekccm Facebook 클럽 Facebook 검색에서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검색 이메일 kccmwi@gmail.com
연중 제 11 주일		2013 년 6 월 15 일		
<제 1 독서> 사무엘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제 2 독서>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화답송 복 음 환호송		◎ 주님,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소서. ○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을 씻은 이! 행복하여라, 주님이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영에 거짓이 없는 사람! ◎ ○ 제 잘못을 당신께 아뢰며, 제 허물을 감추지 않았나이다. “주님께 저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당신은 제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셨나이다. ◎ ○ 당신은 저의 피신처, 곤경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환호로 저를 감싸시나이다. ◎ ○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마음 바른 이들과, 모두 환호하여라. ◎ ◎ 알렐루야. ○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셨네. ◎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7,36—8,3<또는 7,36-50> 그때에 바리사이 가운데 어떤 이가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예수님을 초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 바리사이의 집에 들어가시어 식탁에 앉으셨다. 그 고을에 죄인인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의 집에서 음식을 잠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왔다. 그 여자는 향유가 든 욕항을 들고서 예수님 뒤통 발치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기 시작하더니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나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발랐다.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사이가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에게 손을 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지, 곧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시몬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스승님, 말씀하십시오.” 하였다. “어떤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둘 있었다. 한 사람은 오백 데나리온을 빚지고 다른 사람은 오십 데나리온을 빚졌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옳게 판단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셨다. “이 여자를 보아라.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아 주었다. 너는 나에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어 발라 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식탁에 함께 앉아 있던 이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 용서해 주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오늘의 성가] 시작: 21 봉헌: 217 성체: 160 파견: 56				



바리사이 시몬과 죄 많은 여인은 남매가 아니었을까요?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남매가 있습니다. 오빠는 모든일에 성실하고 모범적이며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는, 소위 엄친아(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여동생은 자기 멋대로 살면서 말썽만 피우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늘 손가락질 당하는 문제아입니다. 어느 날 여동생이 제대로 큰일을 저지릅니다. 부모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값비싼 꽃병을 산산조각 내버린 것입니다. 그날 저녁 동생은 아빠의 다리를 주물러 드리며 갖은 애교를 다 부립니다. 오빠는 동생의 행동이 역겹습니다. 복음내용으로 미루어보아 바리사이 시몬과 예수님은 서로 존중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로마사람들처럼 커다란 방석 위에 비스듬히 누워 식사를 하였던 듯한데, 온 동네가 다 아는 죄 많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발치에 있다가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를 풀어 닦아 드립니다. 게다가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까지 발라 드립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지고 소리죽여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시몬이나 주위 사람들의 생각을 모를 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난감한 처지에 놓였지만 자기변명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여인을 두둔하시면서 500 데나리온과 50 데나리온의 빚을 진 두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둘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그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다.”(루카 7,42)는 말씀이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채권채무관계를 사실대로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그 크기와 무관하게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만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용서해 주시면 용서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죄의 빚을 탕감해주시는 하느님을 있는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하느님께 모범적인 아들이나, 말썽쟁이 딸이나 모두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바리사이 시몬은 예수님을 최소한의 격식에 맞춰 모셨을 뿐, 정작 중요한 ‘더’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죄 많은 여인은 달랐습니다. 물이 아니라, 자신의 참회의 눈물로 발을 적십니다. 수건이 아니라, 자신의 아름다움의 상징인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분의 머리가 아니라, 발에 입을 맞추고 값비싼 향유까지 발라 드립니다. 여인은 ‘더’라고 하는 사랑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성과 마음을 다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루카 7,50)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바리사이 시몬도 사랑하시고, 죄 많은 여인도 사랑하십니다. 둘 다 당신의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사랑스러운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시몬과 여인의 태도가 다를 뿐입니다. 엄친아 바리사이 시몬은 “우리 아들 최고!”라는 부모의 ‘칭찬’에 집착하고, 말썽쟁이 죄 많은 여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청하면 언제라도 다시 받아주시는 부모의 마음’에 매달립니다.

김영국 요셉 신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총장

† 공지사항

1. 견진 성사 안내
일시: 2013년 7월 20일 (토) 5시
장소: St.Paul
집전: 인천교구 교구장 최기산 보니파시오 주교
세례 성사 이후 견진 성사를 아직 받지 않은 분들은 올해의 견진 성사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견진 성사 대상자는 추후 공지될 예정인 견진 성사 교육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2. 예비자 교리교육 안내
7월부터 예비자 교리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7월 교리반의 세례식은 오는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견진성사와 예비자교리 신청은 구역 담당 오재영 제노 형제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 주 미사후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사목위원 여러분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4. 야유회 결산
총 지출: \$864.13, 지출내역: 야유회 장소비(\$139.5), 음료(\$107.98), 간식 비용(\$93.25), 행사선물비용(\$168.09), 머그컵 제작비용 90개(\$355.73)



우리 공동체 소식

< 성경 통독 모임 안내 >

교우 여러분, 함께 모여 주님 말씀을 들어 보아요 금요일에 격주로 모여 성경을 통독합니다.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통독 합니다. 함께 주님 말씀을 들으며 은총의 시간을 나눠 보아요. 남여 노소 누구나 환영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교우님은 연락주세요(전화 : 770-0291)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독서단 모집(계속) >

독서 봉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은숙 글라라 자매님 (esjeon95@mac.com) 혹은 김보미 로마자매님 (bomi92@gmail.com)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교적정리 (계속) >

교적 정리가 진행중입니다. 성당 임구에 비치된 교적 양식을 작성하셔서 교적을 담당하는 홍진국 클레멘스형제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는 성당 홈페이지 게시판의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메일로 (jkhong2350@yahoo.com) 보내주셔도 됩니다.

< 성가대 모집 (계속) >

성가대원과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지휘자 한영주리드비나 (lidiwinahan@gmail.com) 에게 문의하시거나, 미사전후에 지하 Music Room 에 직접 들려주셔도 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남성교우 기도모임 (계속) >

공동체의 남성교우 기도모임에 참여하세요. 격주로 모여 다함께 묵주기도 바치고 묵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다음 모임은 5월 31일 (금) 저녁 8시 사제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신부님 또는 홍진국 클레멘스 (jkhong2350@yahoo.com) 형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